**일본 신화: 불의 신의 참수**

부인인 이자나미의 죽음에 극심한 상실감을 느껴 울고 있던 이자나기의 눈물에서 샘물의 여신이 추가로 탄생했습니다. 이자나미의 장사를 지낸 이자나기는 비극의 원인이 된 불의 신, 가구쓰치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노에 찬 이자나기는 검을 뽑아 단칼에 가구쓰치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검날에 맺힌 피가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새롭게 8명의 신들이 탄생하였는데, 치명상을 입은 가구쓰치의 몸에서도 8명의 신이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신은 바위의 신, 검의 신, 천둥의 신, 화염의 신, 폭포의 신, 산골짜기의 신으로 이들의 탄생은 목가적인 세상에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